

목양칼럼

너는 결단하라

사순절을 앞둔 최근에 여러 차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너는 결단하라” 는 제목을 가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 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의 등불이 네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 날에 그 날에 나와 간다

내일부터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플로리다 고교에서 17명이 총기로 사망하는 등
세상의 어려움은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무릎이 강해지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역전(逆轉)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힘을 잃을 일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44년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 결단하셨습니까?
내일부터 시작인데 아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교우들은 없으시겠지요?
그 결단의 실행을 우리 주님이 내일 새벽부터 매일 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당장 내일부터 결단의 사람들에게 역전승의 은혜가 쏟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교부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중국어 찬양대 지휘 / 윤원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송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더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PASTOR EVERTUS, REV. YOUNGHOON CHANG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2월 18일
제 44-7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5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원도 장로 3부 / 송동윤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1:1-36	사회자
찬양 CHOIR	만유의 주께 찬양해 동행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진정한 자유인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68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338 / 1,3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예배 (2,4부)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정길표 장로 4부 / 함용식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268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21:1-36 4부/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사회자
찬양 CHOIR	내삶의 이유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진정한 자유인 복음을 믿으라: 재림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수요 기도 예배

차량 위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2/21/18) 사회: 송동울 장로

예배부름 사회자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도 김수연 집사

성경봉독 이영호 집사

출애굽기 13:17-22

찬양 찬양대

말씀 이국진 목사

직행길, 돌아가는 길

헌신찬양 차량 위원회

헌금 269 다같이

봉헌기도 최상호 집사

광고 최성호 집사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새가족 환영회

제 5과 그리스도 안에 살아 계신
예수그리스도

차량 위원회 헌신 예배

2/21(수) 오후 8:00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 / 장학금 수여식

2/25(주) 오후 4:00

교회소식

2월 헌신의 달 -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2/19(월)-3/31(토)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 2/21(수) 차량 위원회 헌신 예배

2/25(주)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 / 장학금 수여식 2/28(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3/4(주) 선교회 월례회 / 제 56기 전도폭발훈련 오리엔테이션 3/7(수) 아굴라/브리스가 헌신예배

알림

1.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교통편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장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 기간: 2/19(월)- 3/31(토) 오전 5시 45분

2. 대심방일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F11, 청년지역 2교구: F11, F12, F14 3교구: FH, RW 4교구: LI3, LI6

3.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이 오늘 2/18(주)부터 5주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시간: 오전 11:45 - 210호(학습), 213호(입교/세례), * 고등부 세례 학습: 부서에서 진행

* 유아 세례는 1회로 3/4(주) 오전 11:30(B06)

4. 초등부 수련회 안내 1) 주제: 주기도문 2) 기간: 2/18(주)- 20(화) 3) 강사: 윤선교 전도사

5. 수요기도예배는 차량위원회 헌신예배로 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 이국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6. 교회 설립 44주년 장학금 신청은 오늘 마감합니다. 문의: 채현주 권사, 박정봉 집사

7. 제 56기 전도폭발 훈련 1) 등록 마감: 2/25(주) 2) 오리엔테이션: 3/4(주) 3)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8. 퀴즈성인대학 안내 1) 개강: 3/6(화) 오전 10:30 2) 문의: 이양미 전도사

9. 제5기 영성 훈련 안내 1) 등록마감: 2/25(주) 2) 개강: 3/8(목) 3) 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10. 열릴유아원 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만 18개월-36개월(2/28 기준) 2) 개강: 3/8(목) 오전 10:00

3)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3월 첫주까지, 외부 - 3/6(화) 오전 10시, 선착순 30명

4) 수업: 매주 화,목 오전10:00-12:00 5) 문의: 이명옥전도사

11. 태아교실 안내 1) 대상: 모든 임신 가정 2) 장소: 영아부실 3) 등록비: \$20,00

4) 일시: 3/11, 18(주) 오후 3:30-5:30, 수료 및 만찬 3/22(목) 오후 6:00 5) 문의: 윤지영 권사

12.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 봉사 1) 기간: 2/18(주)-4/8(주) 2) 매주일 오후 1:00-3:30분

3) 장소: 205호 4) 문의: 정재운 집사. 접수 2주 후 세금보고 완성. 수익금 전액 새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

13. 2/24(토)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중국 교포부 (다음주: 청년 대학부, 청년 선교부)

14. 가족기념 장학기금 이인철 장로

새가족

허신일 (한나 1BMT)

교우소식

출 산 김기남 교우 (김단아 교우 2F15) 가정에서 2/6(화)에 득남 (Jaden)하였습니다.

이상성 집사 (이지연 집사 1F11) 가정에서 2/10(토)에 득남 (주용)하였습니다.

소 천 김광준 선교사의 모친 조정에 권사께서 2/10(토) 소천하시어 한국에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자

월 / 최선희 계연란 계대원

수 / 윤영란 하란희 이인화

금 / 박연옥 김려화 김영화 황혜옥

주 / 김 만 임석환 김연희 김성미

화 / 엄수아 엄경제 이영호

목 / 김춘애 김인화 윤영란

토 / 김미선 김려화 김영화 황혜옥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91	러시아어 예배	21	영어부	24	중등부	53
2부 예배	338	청년 선교부	81	유아부	29	고등부	52
3부 예배	325	QBC	266	유치부	26	청년 대학부	38
4부 예배	137	새벽 예배	967	중국어 교육부	21	교회 학교 예배	399
영어 예배	171	수요 기도 예배	258	유년부	81	주일 낮 장년 예배	1657
중국어 예배	293	새가족 환영회	17	초등부	75	주일 낮 총계	2056

2월 봉사의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

헌신기도	차상남 장로	최원일 장로	함용식 장로	남형욱 장로
책임권사	박대희권사	최정우권사	이지희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다비다, 갈렙 주일식사: 교포부(다음주: 청장년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9)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 라는 뜻을 가진 '예수' 라고 부르니까?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되고 찾을 수도 없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406장 /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3장 11-22절

본문을 통해 때에 따라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고통을 충분히 견디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낙심 중에 있을 때 로렘 나무 아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힘을 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의 때에 적절하고도 한결같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시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542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3장 23-35절

하나님께서서는 때때로 믿지 않는 세력을 이용해서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믿는 자들의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하지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세속적인 분야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315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4장 1절-9절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뿐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친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익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명분과 신의를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 감으로써 그 생명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를 우리는 '증인' 이라 말하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337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4장 10-21절

본문에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세상은 항상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려 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라는 최고 권력자 앞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에도 바울은 절대로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여 준 당당함의 이면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 이란 단어에서 '순교자' 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516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4장 22-27절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바울을 계속 감금하였습니다. 정의가 판결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기보다는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자주 만났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고 돈과 이익에 있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고 옳은 길인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이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길지 않은 한평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며 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일 때는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정의롭지 못한 선택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혹여나 내 뜻과 다르게 어떤 일이 지체될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268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5장 1-12절

바울이 갇힌 지 2년 후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 바울은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총독도 유대인들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들의 악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란 이렇게 끈질기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죄 있는 인간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 자신과 주변의 악함을 바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 주기도문